

景濂亭 卓光茂의 삶과 시적 具顯

박명희*

<차 례>

1. 머리말
2. 卓光茂의 삶과 處世
3. 시적 具顯 양상
 - 1) 儒學의 習得과 이해
 - 2) 時局 인식과 節義의 강조
 - 3) 脫俗의인 삶과 濂洛風의 시
4. 호남 한시사상의 위치와 가치
5.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고는 탁광무의 삶과 그의 시문 26제(題) 28수(首)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시적 구현 양상은 어떠했는가? 등을 구명해보고자 하였다.

시적 구현 양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는 유학(儒學)의 습득과 이해요, 둘째는 시국(時局) 인식과 절의(節義)의 강조, 셋째는 탈속적(脫俗的)인 삶과 염락풍(濂洛風)의 시 등이 그것이다.

첫째의 내용에서는 주로 탁광무가 유학을 습득하는 과정과 어느 정도의 이해를 하고 있었는가 등을 다루었다. 탁광무는 유학이 어떻게 알려지고 있는가 등에 대한 내용을 시문에 담았는데, 유학과 관련된 작품에서 아직은 깊이 있는 사상을 드러내지 못한 것을 한계점으로 지적하였다.

둘째 내용에서는 탁광무의 시국 인식 정도와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절의를 강조하는 모습을 주로 언급하였다. 탁광무와 교유했던 주요 인사들은 대부분이 고려의 신하로서 조선의 건국에 별로 동조하지 않았다. 때문에 심한 고초를 겪어야만

* 조선대학교

했는데, 그러면서도 절의만을 꺾지를 앓았다. 탁광무는 이점을 높이 샀던 것이다.

셋째 내용에서는 탁광무가 벼슬에서 물러난 후 탈속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아울러 그러는 가운데 창작된 염락풍의 시문에 주목하였다. 염락풍은 속된 기운이 없음을 말하는 것으로 마치 주돈이(周敦頤)의 인품과 비견된다고도 할 수 있다.

핵심어 : 卓光茂, 李齊賢, 李崇仁, 鄭道傳, 文益漸, 周敦頤, 濂洛風, 鄭夢周, 호남한 시사, 景濂亭, 『景濂亭集』

1. 머리말

14~5세기 고려 사회는 대내외적으로 수많은 변화를 예고하였다. 우선 외적으로는 중국에서 元·明 교체가 이루어져가고 있었고, 그 여파를 틈타 紅巾賊이 고려를 침략해 왔으며, 북쪽의 女眞과 남쪽의 倭寇의 준동이 해마다 그치질 않았다. 내적으로도 이러한 대외적인 변동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기에 대륙의 원과 명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지 등과 같은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어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官制·田制 등 정치제도의 붕괴와 경제체제의 해이, 사원과 승려의 타락, 사회 기강의 문란, 권문 세족과 신흥사대부의 대립, 신분 제도의 변동, 사상적으로 성리학의 수용 등등 격동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¹⁾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고려 말 한문학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갔는가? 당시 한문학을 담당한 주체들이 여러 요직에 두루 있었던 까닭에 격동의 대내외적인 상황을 비껴갈 수 없었고, 직·간접적으로 작품을 통하여 당시의 상황을 그려 나갔다. 특히, 신흥사대부로 지칭되는 인사들의 학문적인

1) 이러한 고려 말의 상황은 朴天圭(『三隱과 麗末 漢文學』, 『동양학』9, 단국대 동양학 연구소, 1979, 179쪽)와 李泰鎭(『高麗末·朝鮮初의 社會變化』, 『진단학보』55집, 진단학회, 1983, 1쪽)의 논문을 참조함.

수준과 문학적 성과는 고려 말의 문단 상황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李齊賢, 李穀, 李穡, 鄭夢周, 李崇仁, 鄭道傳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이세현은 패설류와 시화류를 묶은 작품집인 『櫟翁稗說』을 지었고, 이곡은 가전체문학인 「竹夫人傳」을 남겼으며, 이색과 정몽주 등은 성리학적인 뚜렷한 성과를 남겼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고려 말 한문학 연구는 이러한 문인들의 문학적 성과와 학문적 수준을 감안한 것으로서 정리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학사의 흐름은 결국 큰 물줄기를 따라 정리된다는 점에서는 동의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물줄기에 가려져 드러나지 않는 작은 물줄기들은 도외시할 것인가도 한번쯤 생각해볼아야 한다. 당대에는 저명한 학자요, 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대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면, 결국 여러 이유를 해명한다고 해도 放棄했음에 분명하다. 본 논고에서 주목한 景濂亭 卓光茂(1330~1410)도 우리 문학사에서 큰 물줄기는 되지 못한 작은 물줄기에 불과하지만, 여러 이유로 주목을 필요로 한다. 첫째, 당시 그의 정치적인 입장과 활동 정도 때문이다. 탁광무는 恭愍王 초에 문과에 합격한 후 內書舍人, 左司議大夫 등 요직을 거치며 상당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둘째, 당대 주요 문인들과 교류함으로써 고려 말 문단 상황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류했던 주요 문인들을 열거하면, 정몽주·이세현·이승인·이곡·이색·文益漸·禹倬·吉再 등인데, 이들이 당대를 대표할만한 문인들임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셋째, 『東文選』에 무려 시문 4편이 수록됨으로서 명실공히 고려 말의 주요 문인임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인들에 비해서 드러나지 않았는데, 관직에 오르기는 했지만 오랫동안 활동하지 않았고, 특히 기록 자료를 당대에 정리한 것이 아니라 후대에 정리하다보니, 많은 자료가 누락되면서 연구의 기본적인 요소인 자료의 풍부성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본 논고는 탁광무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연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그의 삶은 어떠했는가?에서 출발하여 최대 문학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시

문에 주목하여 시적 구현 양상은 어떠했는가? 등을 구명해보고자 한다.²⁾ 저본으로 삼은 책은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발간한 한국문집총간6의 『景濂亭集』이다. 이 책은 2권 1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 곳의 기록을 후손들이 모아서 엮은 것으로 1827년에 초간되었고, 1850년에 다시 간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권1에는 탁광무의 시문을 비롯한 다른 문인들이 탁광무와 관련하여 읊은 시문들이 주로 모아져 있고, 권2는 부록으로서 저자의 행적과 제문, 奉安文 등이 실려 있다. 본 논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시문은 총 26제 28수이다. 사실 『경림정집』에는 24제 26수가 전해오는데, 『治隱續集』하권에 「別治隱入金烏山」과 「贈治隱」 등의 시문이 전하고 있어서 이들과 포함하여 28수가 된 것이다. 이러한 탁광무에 대한 연구 성과는 결국 고려 말 한문학의 한 단면을 보여줌과 동시에 호남한시사의 거의 초기 모습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卓光茂의 삶과 處世

탁광무에 대한 기록은 『고려사』, 『동문선』, 『三峯集』, 『朝鮮王朝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그리고 문집 『경림정집』 등에 나와 있다. 먼저 『고려사』에서는 탁광무가 벼슬에 오른 시기와 어떤 벼슬에 올랐다는 내용을 적었고, 『동문선』에서는 탁광무의 시문 4편을 소개하였다. 鄭道傳의 문집인 『삼봉집』에서는 탁광무가 退仕 후 고향 光州에 내려와 경림정이라는 누정을 지은 후 지낸 내용을 적었고, 『조선왕조실록』 세종조에서는 탁광무의 아들 卓愼의 卒記를 적었는데, 신의 효행을 언급하던 중에 아울러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全羅道 光山縣의 인물로서 간단히 소개하였다. 이들 기록을 종합해 볼 때 탁광무는 1330년 고려 忠肅

2) 탁광무의 문학적 성과와 관련된 언급으로는 閔丙秀(『한국한시사』, 태학사, 1996, 188쪽 / 『한국한문학개론』, 태학사, 1997, 315쪽)의 것이 유일하다. 그러나 단순히 이름만 나열하는 정도로 그쳤다.

王 17년에 태어났으며, 탄생지가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世居地가 당시 광주였던 것으로 미루어 광주 모처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본관은 광주(광산이라고도 함)요, 자는 謙夫, 호는 경렴정 혹은 拙隱 등이 있었으며, 死後 내려진 시호는 文正이다. 그리고 시조는 學圃 卓之葉 이요, 탁광무는 그의 8세손으로서 부친 泉谷 卓文位는 당시 集賢殿大提學 까지 지냈으니, 부친의 직위를 보면, 탄탄한 가문을 형성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사』권74의 기록에 따르면, 탁광무는 복위한 忠惠王 원년(1340년)에 司馬試에 합격하는데, 이때의 나이가 11세였다. 그후에 대한 기록이 전무하여 자세하지는 않은데, 추측하건대 1351년 恭愍王이 즉위한 초에 文科에 합격하여 벼슬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민왕 14년(1365년)에는 내서사인이 되었고, 그 이듬해에는 좌사간대부에 올랐으며, 그후 右司諫大夫, 進賢館提學, 知製敎, 禮儀判書 등을 거친 후 낙향하여 ‘경렴정’이라는 누정을 짓고 유유자적하게 여생을 살았다. 이러한 내용을 『경렴정집』서문과 발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① 경렴은 고려 공민왕 때에 벼슬을 하여 바른 말을 하여 아첨하지 아니하였고, 배척함에 후회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의 직책을 돕고 조정의 기강을 바르게 하는 데에 마음을 다하였으나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음을 안 연후에 몸을 받들어 벼슬에서 물러나와 늙어 죽도록 산중에 있으면서 자정의 지조를 본받으니 그 충이 지극하였다.³⁾

② 경렴공의 經學 忠勳 같은 데에 이르러서는 전세에 빛남이 있었다. 공민왕 초기에 월등한 실력으로 뽑혀서 간의로 배알하고 14년 을사년에 내서사인으로 옮겼다가 이듬해에 또 좌사의대부로 옮겨 마침내 봉익대부 예의판서, 진현관제학에 이르렀으니 『고려사』에 나온다. 대저 어찌 중간에 일로 인하여 유배를 갔겠는가? 그 후에 몸을 굽혀 늙어 물러나 정자를 광주 별서에 짓고 서 땅을 파고 연꽃을 심어 연못 가운데에다가 섬을 만들어 한 번 읊조리고

3) 卓光茂, 『景濂亭集』, 景濂亭集序[柳圭], 景濂 仕高麗恭愍朝 直言不佞 擯斥無悔 盡心於補袞職整朝綱 而知無可如何 然後奉身引退 終老山中 以效自靖之操 其忠至矣.

또한 읍조려 소요하면서 자득하였다. 益齋 李齊賢 文忠公이 그 편액에 제목을 붙이기를 ‘景濂亭’이라고 하니 대체로 周敦頤의 愛蓮의 뜻을 취하여 우리 사모하고자 하는 뜻이었다.⁴⁾

①에서는 탁광무가 공민왕 때에 벼슬을 하였으며, 바른 말을 하여 권력에 아첨하지 않았음을 적어 올곧은 성격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여러 직책을 두루 거친 후에 관직에서 물러났음을 적으며,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지극했음을 말하였다. ②는 탁광무의 19세손 雲翰이 적은 발문으로 주로 광주탁씨 가문의 주요 인물을 적는 가운데 탁광무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적은 내용이다. 먼저 탁광무의 경학과 충훈이 빛났음을 들면서 공민왕 때 지낸 벼슬을 열거하였다. 그러면서 일로 인하여 유배 등을 가지 않았음을 강조하였다. 벼슬에서 물러난 후에는 누정을 광주 별서에 지었는데, 그곳에 연꽃 등을 심는가 하면, 시문을 읍조리면서 유유자적한 생활을 즐겼음을 적었다. 그러면서 당대 주요 當路者인 이제현이 ‘경림정’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중국 송 때의 유학자인 주돈이의 「愛蓮說」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드러내었다.

이들 둘의 기록 내용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관직 생활 중 드러난 處世와 퇴사 후의 삶의 자세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분명한 점은 탁광무는 불의를 보면, 쉽게 넘어가는 성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사』권105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우사의대부 탁광무가 “洪永通이 별군을 사촉하여 간관들을 능욕하였으니 이런 일을 차마 한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하였다. 그리고 그의 관직을 파면하여 평민으로 만들 것과 그의 재산 몰수를 요청하였으나 辛旽이 힘써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처벌을 모면할 수 있었으며, 도리어 좌사의대부 申

4) 卓光茂, 『景濂亭集』, 景濂亭集跋, 而至若景濂公之經學忠勳 于有光於前世焉 恭愍初擢高第 拜諫議 十四年乙巳 遷內舍人 越明年 又遷左司議大夫 竟至奉翊大夫禮儀判書, 進賢館提學焉 出麗史 夫中間因事被謫矣 其後 乞身退老 作亭于光州別墅 鑿地種蓮 築島池中 一嘯一詠 自得逍遙焉 李益齋齊賢文忠公 題其扁曰景濂亭 蓋取濂溪愛蓮之義 而欲其景慕之志也.

德隣 등이 왕이 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하여 파면 당하였다. 신돈이 처형되자 사헌부에서는 그를 신돈의 일당이라고 하여 죽이자고 요청하였으나 왕은 그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만 관직만을 파면시켰다가 얼마 후에 귀양을 보냈다.⁵⁾

홍영통은 당시 繕工副令 洪承演의 아들로 공민왕 때 蔭補로 벼슬에 나와 判典客寺事, 감찰대부, 밀직부사 등을 역임하였는데, 당시 권력의 실세로 부각한 신돈에게 아부하여 벼슬을 구걸하였다. 한 번은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 팔관회 행사로 인하여 都僉議使司의 마당에서 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는데, 홍영통이 그만 別軍들이 차려놓은 제물을 훔쳐갔다. 省吏가 큰 소리로 욕하면서 말리었더니 홍영통이 별군을 풀어 놓아 省官들을 함부로 치게 하였다. 때문에 당시 좌사의대부로 있던 신덕린 등이 부상당하여 피가 병풍과 요를 더럽혔다. 위 문장의 처음 내용은 그 다음 상황을 적은 것으로 탁광무가 홍영통의 행위를 준엄하게 꾸짖고 있는 부분이다. 홍영통의 뒤에는 신돈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함부로 다루지를 못했는데, 탁광무는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잘못된 상황을 바로 고치려고 노력하였다. 탁광무의 불의에 과감히 맞서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하나의 기록 내용이다.

다음은 벼슬에서 물러난 후 탁광무의 행적을 적은 정도전의 「景濂亭銘後說」로 앞부분을 실는다.

겸부 탁선생이 광주 별장에 못을 파서 연꽃을 심고, 못 가운데에 흙을 쌓아 작은 섬을 만들어 그 위에 정자를 짓고 날마다 오르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았다. 익재 이문충공이 그 정자를 ‘경림’이라고 이름하였는데, 이는 대개 연계의 연꽃을 사랑하는 뜻을 취하여 그를 景仰하고 사모하고자 한 것이리라. 대저 그 물건을 보면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반드시 그 물건에 마음을 쓰게 된다. 이것은 느낌이 깊고 후하기가 지극한 것이다.⁶⁾

5) 『高麗史』卷105.

6) 鄭道傳, 『三峯集』卷4, 「景濂亭銘後說」, 謙夫卓先生 於光州別墅 鑿池種蓮 築土池中 爲小島 構亭其上 日登以樂 益齋李文忠公 命其亭 曰景濂 盖取濂溪愛蓮之義 欲其景

위 글은 제목을 통해서 보자면, ‘경림정’이라는 누정의 이름이 정해진 후에 지은 것으로 그 이름이 어떻게 해서 지어졌으며,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등을 주로 적었다.

먼저 탁광무가 광주 별장에 연못을 파서 연꽃을 심고, 못 가운데에 흙을 쌓아 작은 섬을 만들고 그 위에 누정을 지은 사실을 적었다. 이제현이 이런 모습을 보고서 누정의 이름을 ‘경림정’이라고 지어주었는데, 이는 주돈이의 호인 ‘濂溪’를 들어 ‘주돈이를 우러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찍이 주돈이는 「애련설」을 통해서 화려하지는 않지만, 마치 군자의 쇠락함을 닮은 연꽃을 애찬하였다. 이제현은 탁광무가 연못가에 연꽃을 심은 것을 주시하면서 주돈이를 존경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누정의 이름도 그와 관련하여 ‘경림’이라고 지었는데, 정도전은 이러한 점을 놓치지 않았다. 이제현이 ‘경림’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이나 정도전이 주돈이와 연결하여 풀이한 것을 통해서 탁광무를 바라보는 시각이 드러나는데, 대체로 혼탁한 세상에 쉽게 물들지 않으면서 쇠락함을 견비한 유학자적 면모를 지닌 것으로 인식했다고 하겠다. 이는 당시 중국 송의 신유학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탁광무는 분명 유학자로서의 면모를 갖추려고 노력했다는 말이기도 하다.

탁광무는 결국 벼슬에 있을 때는 불의에 쉽게 용납하지 않았으며, 벼슬에서 물러난 후에는 유학자적인 면모를 견지하면서 소극적인 절의를 표방하였다. 고려가 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설 때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며 절의를 지킨 인사들도 있어서 후대인들의 인구에 회자되거나 추앙받고 있다. 동시대를 살다간 탁광무는 여기에서 다소 동떨어져 있는 듯하지만, 사실 자연에 은거하면서 세상에 뜻을 두지 않는 태도는 소극적이지만 같은 상황을 겪은 유학자들이 보통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다. 즉, 소극적인

慕之也 夫見其物 則思其人 思其人 則必於其物致意焉 感之深 而厚之至也. 같은 글이 『동문선』 권97에도 실려 있다. 정도전은 탁광무와 관련하여 「鷲峯寺樓上賦得一絕奉寄卓先生」(『삼봉집』 권2)이라는 시문도 남겼는데, 둘의 사이가 가까웠음을 감지할 수 있다.

듯하지만, 그 안에는 적극적인 저항 의식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탁광무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을 뿐이지 다른 사람 못지않게 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러한 삶의 모습과 처세 등은 그가 읊은 시문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3. 시적 具顯 양상

1) 儒學의 習得과 이해

고려 무신집권기가 끝난 후 사상계도 유학을 중시하는 분위기로 재편되어 갔는데, 고려 초기가 기본유교적인 성격을 띠었다면, 중기로 접어들면서 문학유교적인 경향을 보이다가 忠烈王 때에는 程朱學이 전래되면서 정주학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⁷⁾ 그리고 이러한 학문의 전파에 선구적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安珦과 白頤正임은 알려진 바로 이는 다음과 같은 『고려사』의 기록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① 만년에 늘 朱子의 眞像을 걸어두고 景慕하여 드디어 자신의 호를 ‘晦軒’이라고 하였다.⁸⁾

② 그때 정주학이 중국에 처음으로 행했으나 동방에 미치지 못했다. 백이정이 원나라에 있으면서 그것을 배워 동쪽으로 돌아오니 李齊賢, 朴忠佐가 제일 먼저 가르침을 받았다.⁹⁾

안향과 백이정은 모두 왕을 扈從하여 원나라에 다녀온 이력이 있는데,

7) 李炳赫, 「程朱學 傳來와 麗末 漢文學」, 『동방문화비교연구총서』1, 한국동방문화비교연구회, 1985, 662쪽 참조.

8) 『高麗史』列傳18, 安珦, 晩年 常掛晦菴先生眞 以致景慕 遂號晦軒.

9) 『高麗史』列傳19, 白頤正, 時程朱之學 始行中國 未及東方 頤正在元 得而學之 東還 李齊賢朴忠佐首先師受. 이에 대한 기록은 『東史綱目』第13上에도 나온다.

당시 중국의 학문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안향과 백이정 둘 중에서 과연 누가 먼저 송의 유학을 전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있었다. 위 ① 안향에 대한 기록에 의하면, 단지 주자를 존경했다는 언급만 나올 뿐 학문을 직접 전수받았다고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② 백이정과 관련된 기록에서는 ‘백이정이 원나라에 있으면서 정주학을 직접 배웠다’고 하였다. 기록상으로 보자면, 고려에 송의 유학을 직접 전해준 사람은 백이정인데, 그렇다고 안향의 공을 전혀 무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안향에 의해 송의 유학이 전래되기 시작하였고, 본격적인 전래와 학맥 형성은 백이정에 의해서 가능해졌다는 내용으로 정리가 가능하다. 여기에서 백이정의 제자로 이제현과 박충좌가 나온다. 이 가운데 특히, 이제현은 일생동안 총 네 차례 入元한 경력도 있으면서 공민왕 초기 여러 관직을 두루 거치며 개혁을 주도했던 문인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시험관인 知貢擧를 두 번이나 역임하며,¹⁰⁾ 제자 문인들을 많이 배출하였다.

탁광무의 학문을 이해하는 첫 번째 단서는 이러한 이제현과의 관련성이라고 할 수 있다. 2장에서 이미 언급한 바대로 이제현은 탁광무가 지은 누정에 ‘경림’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어떤 경위에서건 둘이 서로 잘 모르는 사이라면 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둘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뚜렷한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다. 한 가지 이제현이 공민왕 초기 주요 요직을 거칠 때 탁광무가 본격적으로 관직에 나아갔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는데, 이 무렵에 서로 만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해본다. 그리고 당시 이제현을 따르던 문인들이 많았던 점을 미루어 보면, 탁광무도 그중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¹¹⁾ 이로써 탁광무가 유학을 접할 때 이제현

10) 이제현은 忠肅王 7년(1320)과 恭愍王 2년(1353) 두 번의 지공거를 역임하였다. 여기에서 배출된 제자들로는 李穀·尹澤·安輔·白文寶·李穡·林尙衷·鄭樞 등이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李淑京(「李齊賢勢力의 形成과 그 役割-恭愍王 前期(1351~1365) 改革政治의 推進과 관련하여-」, 『한국사연구』64, 한국사연구회, 1989)의 논문을 참조할 것.

11) 정옥자는 이제현과 탁광무를 선후배 사이로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麗末 朱

이 어느 정도 일조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실마리는 다음의 화답시문에서 찾을 수 있다.

- | | |
|---|---|
| ① 人遐國步危
世遠聖門衰
此理如虛影
執盈孰有知 ¹²⁾ | 사람들 나라의 운세 멀리하니 위급해지고
세상은 성인의 뜻과 멀어지니 쇠해지네
이러한 이치 빈 그림자와도 같은데
벼슬을 잡은들 누가 알아주리요 |
| ② 處世獨持危
在家自慰衰
聖門傳一貫
吾道學而知 ¹³⁾ | 세상에 처해선 위급함 홀로 가지시더니
집에 계실 땐 쇠해짐 스스로 위로하는군요
성인의 뜻 일관되게 전하시니
나의 도는 배워서 안 것입니다 |

①은 이제현이 탁광무에게 준 시이고, ②는 ①의 시를 받고서 탁광무가 화답한 작품이다. ① 시문의 내용에 따르면, 이제현은 당시 國運과 학문적 상황을 위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②에서는 이러한 이제현의 근심을 조금 풀어주고자 하는 탁광무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 특히, ②의 전·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구의 ‘聖門傳一貫’의 ‘傳’의 주체는 이제현이고, 결구의 ‘學而知’의 주체는 탁광무이다. 그리고 보면, ‘吾道’ 즉, 유학의 도를 전해준 사람은 이제현이요, 그것을 받은 사람은 탁광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연으로 탁광무가 관직 생활을 그만 두고 광주에 누정을 세우게 되었을 때 학문적 분위기를 누구보다도 잘 안 사람이 이제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걸맞은 누정명을 지어주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즉, 탁광무는 이제현의 제자군으로 알려지지 않는 않지만, 둘의 관계를 사제시간으로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제현이 세상을 떠나자 탁광무가 그를 위로하는 시문을 남겼는데, 경·미련에서 ‘만 리에 퍼진 충

子性理學의 導入에 대한 試考-李齊賢을 中心으로-, 『진단학보』51집, 진단학회, 1981, 50쪽 참조.

12) 卓光茂, 『景濂亭集』卷1 附原韻, 「贈景濂亭」

13) 卓光茂, 『景濂亭集』卷1, 「和益齋李齊賢」

명 강산의 달이요, 천 년의 기상 우주의 봄이라네. 정령과 혼백은 바람에도 죽지 않으니, 인간 세상에 어찌 이런 사람이 다시 있으리오.’¹⁴⁾라고 하여 예찬해마지 않았다.

탁광무의 유학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지대했는데, 다음 두 시문은 이를 간접적으로나마 알려준다.

- | | |
|---|--|
| ① 有儒鄭可宗
性理得中庸
言必稱吾道
優遊牧隱從 ¹⁵⁾ | 유학자 정가종
성리학을 『중용』에서 얻었네
말만 하면 반드시 儒道를 일컬으며
한가로이 목은을 따르네 |
| ② 丹陽城北丹田里
中有斯翁卽主人
一點天真忘寵辱
易東歸自泗洙濱 ¹⁶⁾ | 단양성의 북쪽 단전리
그 안에 이 노인이 곧 주인이로다
한 점의 천진함은 모든 욕됨을 잊으니
易東이 泗洙 물가에서 돌아오셨네 |

①의 시제는 ‘함께 노닐던 이송인에게 보이다’로 주로 鄭可宗과 이색이 함께 유학의 도를 쌓아가는 모습을 전하고 있다. ‘가종’은 鄭子因의 字로 이색이 제자요, 친구처럼 생각했던 사람이다.¹⁷⁾ 탁광무는 평소 이 둘이 서로 이끌고 따르는 모습을 보아왔던 모양인데, 시문 ①은 이러한 상황을 알려주고 있다. 먼저 기·승구에서는 정자인이 주로 『中庸』을 열심히 공부했음을 전하고 있으며, 이어서 항상 유학의 도를 말하였다고 덧붙이면 서 이색을 따랐다고 하였다. 즉, ①은 이송인에게 학계의 분위기와 유학의 도가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를 알려주고자 쓴 시문인데, 이송인은 이에 대하여 ‘강한이 조정에 조회하니, 바닷물의 한 이치 『중용』으로 통하네.

14) 卓光茂, 『景濂亭集』卷1, 「輓李文忠公益齋, 聰明萬里江山月, 氣象千年宇宙春. 精魄靈魂風不死, 人間那復有斯人.

15) 卓光茂, 『景濂亭集』卷1, 「示同遊陶隱李崇仁」

16) 卓光茂, 『景濂亭集』卷1, 「過易東舊居禹倬祭酒丹陽人」

17) 이색과 정자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牧隱文藁』卷10, 「子因說」에 나와 있는데, 이는 『東文選』卷96에도 기록되어 있다.

진정한 근원은 모두 나에게 있어, 스승과 벗들 더불어 따르네¹⁸⁾라는 화답시를 남긴다. 기구의 ‘江漢見朝宗’은 상징적인 어구들의 집합으로 ‘朝宗’은 제후와 백관이 帝王을 찾아가서 朝會하는 것을 말하고, ‘江漢’은 온갖 물줄기의 대명사로서 마치 온갖 물줄기가 조회하듯이 바다로 모여든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여, 당시 유학이 상당히 흥성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

②는 禹倬의 옛집을 지나다가 지은 작품으로 창작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우탁이 1342년에 세상을 떴기 때문에 사후에 舊居를 지나다가 지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탁은 송나라 유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던 초기의 학자로 본관은 丹陽이요, 자는 天章 또는 卓甫이며, 호는 白雲·丹巖인데, 世人들은 『易經』에 정통했다고 하여 흔히 ‘易東先生’이라고 일컬었다. 시문 ②의 기·승구에서는 우탁의 호와 관련된 지명을 써서 사는 곳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전구에서는 우탁이 ‘天真’하다라고 하며, 본래 타고난 품성이 어떠한지를 말하였고, 결구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일컫는 호를 써서 유학서 중에서도 특히 『역경』의 내용을 터득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언급하였다. ①과 마찬가지로 탁광무의 유학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를 느끼게 하는 작품이다. 하지만 유학과 관련된 작품에서 아직은 깊이 있는 사상을 드러내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는데, 학문적인 성숙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 時局 인식과 節義의 강조

앞 서두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14~5세기는 대내외적인 격동의 시기였다. 특히, 고려가 망할 징조는 여러 곳에서 포착되었는데, 당시 학문적으로 철저하게 무장한 신흥사대부 계층은 事案이 생길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고민이었다. 당시는 신흥사대부 계층과 권문세족이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었고, 중국은 원·명 교체기로서 그 여파가 국내에까지 미쳐 어지

18) 卓光茂, 『景濂亭集』卷1 附原韻, 「和景濂亭」, 江漢見朝宗, 海通一理庸. 眞源都在我, 師友與俱從.

러운 나라의 연속이었다. 때문에 어떤 사건에 연루되다보면 유배가는 것은 茶飯事였는데, 많은 문인들의 행력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대로 탁광무와 교유했던 주요 인사들로는 정몽주, 이제현, 이송인, 徐甄, 李仁復, 이곡, 이색·李種學 부자, 문익점, 尹紹宗 등인데, 이들 중 많은 사람이 고려 말에 어떤 사연으로든지 유배를 다녀왔던지, 심지어 조선 개국 무렵에 절의를 표방하며 자신의 목숨조차도 쉽게 저버렸다. 먼저 어지러운 시기에 나라를 걱정하는 탁광무의 마음이 담긴 시문으로 다음의 작품을 들 수 있는데, 바로 時局 인식이 담겼다고 하겠다.

客舍風煙古錦州	객사의 바람과 연기 자욱한 옛 錦州에
遙知憲叔獨登樓	憲叔이 홀로 누대에 오름을 멀리서도 알겠네
登樓何日無憂國	어느 때나 나라 걱정 않고 누대에 오를까
進亦憂時退亦憂 ¹⁹⁾	벼슬에 나아가서도 걱정 물러서서도 걱정이로다

尹紹宗은 생년으로 보면, 탁광무보다 15년이 늦다. 이색의 문인으로서 충민하고 학문을 좋아해 20세 이전에 시문에 능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무송 윤소종의 글은 상대가 없다’²⁰⁾라는 권근의 시문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한편, 1388년 李成桂가 威化島에서 回軍했을 때 동문 밖에까지 나가 「霍光傳」을 지어 바친 일은 잘 알려져 있는데, 이때 이미 고려를 배반하고 조선의 개국을 도울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도전과 뜻을 함께 하여 조선 태조 때의 명신으로 그 이름이 올라가기도 하였는데, 반대로 조선중·후기 문인인 申欽은 윤소종이 고려 말 辛·禍 때에 諫官으로서 우왕의 잘못을 낱낱이 들춰낸 것은 잘못이라고 하면서 이는 마치 임금의 허물을 들어 장난한 것에 불과하다²¹⁾라고 하며 비판을 하였다. 위 시문은 윤소종이 일찍이 고려의 마지막 왕인 恭讓王 때 남을

19) 卓光茂, 『景濂亭集』卷1, 「寄桐軒尹紹宗」

20) 權近, 『陽村集』卷8, 「追憶三峴舊遊 又成一首」, 茂松文無敵.

21) 申欽, 『象村集』卷45 外集5 「彙言」5, 辛禍, 時尹紹宗爲諫官 言禍所失 直斥無遺 蘊有若數罪者 此豈眞直言者哉 不過谷永之專攻上身爾 彰君之惡 弄之掌股之間 不然則何以革面於二君也.

비방하다가 錦州(현 錦山)로 유배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지어서 준 작품이다. 승구의 ‘憲叔’은 윤소종의 자로 금주로 유배가 외롭게 홀로 있는 모습을 상상하여 그렸다. 전·결구에서는 탁광무가 憂國하는 모습이 엿보이는데, 현실적으로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바로 탁광무가 시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²²⁾ 어떤 한 개인이 유배를 떠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좋은 상황이 아님을 말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고충을 감내해야 한다. 때문에 만일 유배를 떠나는 사람에게 위로의 시문을 전한다면, 심한 경우 마치 피눈물을 토하는 심정으로 슬픔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런데 위 시문은 같은 유배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은 상당히 완화되어 있어서 격정적이지 않다. 대신 시국을 걱정하는 내용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은 것이 위 시문의 특징이다. 그러나 다음의 시문은 유배라는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지은 화답시인데, 앞의 시문과는 달리 감정이 들어가 있으면서 절의를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탁광무는 문익점과 관련하여 총 세 편의 작품을 남겼는데, 「淚和三憂堂文益漸」, 「次三憂堂」, 「和三憂堂」등이 그것이다. 첫 번째 작품은 처음 유배를 가서 문익점이 「謫南荒 贈景濂亭」이라는 시문을 지어 주니까 화답한 것이고, 두 번째 작품은 유배지에 있는 문익점을 생각하면서 지은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작품은 유배가 풀려 문익점이 한양으로 돌아올 때 지은 시문에 화답한 것이다. 먼저 첫 번째 작품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咫尺當頭萬里顏	머리를 맞대듯 지척인 듯하나 만리의 얼굴
堂堂此去重於山	당당히 떠나가니 산보다도 무겁군요
楚囚日久南冠繫	감옥에 갇힌 초나라 사람 오래도록 관을 매고 있다가

22) 탁광무의 시문에 대한 윤소종의 화답시로 「尹桐軒和韻」(『景濂亭集』卷1 附原韻)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조경에서 일 보다가 錦州의 손님이 되어, 州中에서 때로 고향의 누정을 바라봅니다. 구름을 보고 달 아래를 거닐며 집 생각에 눈물 나고, 물에 임하고 산에 오르니 도성을 떠난 것이 걱정입니다[事在朝廷客錦州, 州中時有望鄉樓. 看雲步月思家淚, 臨水登山去國憂]

漢節風生北海還²³⁾ 한나라의 절개 바람 일으키며 북해에서 돌아왔지요

어떤 시문이든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어지게 된 상황을 알아야 하는데, 이 작품은 더욱더 그렇다. 먼저 문익점이 탁광무에게 지어준 「적남황 증경렴정」의 시제를 이해해야 한다. 시제에 나오는 ‘南荒’은 ‘남쪽 변방’을 뜻한다. 즉, 시제를 풀어보면, 문익점이 남쪽 변방으로 유배를 떠나면서 탁광무에게 자신의 느낌을 적어서 준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의 ‘남쪽 변방’은 구체적으로 중국의 劔南이라는 지역을 가리키는데, 그렇다면 문익점은 어떤 사연으로 떠나면 중국의 남쪽 변방까지 유배를 가게 되었을까? 여기에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李德懋가 지은 『靑莊館全書』에 그와 관련된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다. 그 요점을 정리하면, 공민왕 9년(1360)에 정몽주와 함께 과거시험에 급제한 문익점이 4년 후에 左司議大夫로 명을 받고 원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崔濡가 공민왕을 중국 황제 順帝에게 참소하는가 하면, 충선왕의 셋째 아들인 德興君을 왕에 세우고 자기는 정승이 되고자 하였다. 그러면서 문익점의 강직한 성격을 들어 황제의 말을 잘 듣지 않을 것이라고 참소한다. 그래서 순제가 직접 불러 덕흥군을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뜻을 말하며, 문익점의 의향을 물었다. 이에 대해 문익점은 “임금과 신하의 의는 천지 사이에 피할 곳이 없습니다. 신이 비록 無狀한 사람이오나 감히 조서를 받들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니, 순제의 노여움이 극에 달하였고, 사형에 처하라고 명한다. 그러자 중국 조정의 여러 신하들이 그를 위하여 구제하여 死罪에서 풀려나, 마침내 남쪽 변방으로 유배가게 되었고, 문익점이 고려로 오는 장사꾼을 통해 몰래 최유의 사건을 공민왕에게 통고하여 약 3년 만인 공민왕 15년에 赦宥되어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때 문익점이 남방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던 목화씨를 붓뚜껑에 몰래 숨겨 들여오게 된다.²⁴⁾ 이를 보면, 문익점은 공민왕에 대한 절개를 다

23) 卓光茂, 『景謙亭集』卷1, 「淚和三憂堂文益漸」

24) 李德懋, 『靑莊館全書』卷68, 「寒竹堂涉筆」上 富民侯, 文益漸字日新 小名益瞻 晉州

하기 위하여 결국 목숨까지도 불사하였고, 탁광무 또한 이러한 상황을 이해를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의 시문을 지어 위로하였던 것이다.

시적에 가까이 있는 듯이 느껴지지만, 떠나면 곳에 있기에 얼굴은 직접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하여 승구에서는 문익점이 불의에 굴하지 않는 모습을 ‘산보다도 무겁다’라고 하여 의지가 강렬함을 나타내었다. 전·결구에서는 쯔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던 楚人 鍾儀와 흉노에 사신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19년 동안 억류되었던 漢人 蘇武에 대한 고사를 들어 이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역경을 딛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왔듯이 문익점도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종의와 소무는 절의의 대명사처럼 나오는 인물인데, 이들을 등장시켜 문익점의 절의를 높이 샀다고 하겠다. 그리고 또한 「차삼우당」의 결구 ‘수양산에 지는 해도 백이·숙제에 부끄럽구나’²⁵⁾에서도 중국 고대 은나라 말에 절의를 지켰던 백이·숙제를 들어 문익점이 지킨 절개를 예찬하였다.

다음 시문은 이송인에게 화답한 두 수 중의 두 번째 작품으로 간접적으로 절의를 강조하고 있다.

一孤忠別一孤城	외로운 성의 외로운 충신의 이별
此世興亡任此行	이 세상의 흥망을 이 행차에 맡기네
難死難生心自決	죽기도 살기도 어려워 스스로 결단하니
不求不保命猶榮 ²⁶⁾	목숨 구함과 보존 바라지 않으니 오히려 영광스럽네

江城縣人也 高麗恭愍王九年元順帝至正二十年庚子 擢第 與鄭夢周同榜 見麗季儒學廢而釋教行 慨然以繼絕學 爲己任 倡明正道 詆斥異端 教人 必以忠孝之行 性理之學 二十四年甲辰 以左司議大夫 奉使入元 會崔濡譖恭愍王于順帝 欲立德興君而自爲相 蓋德興君時爲上使 濡又譖益漸曰 副使文益漸 素稱剛直 必不從命 願陛下抑之也 順帝召益漸 謂之曰 麗王荒淫 朕欲廢王立德興君 爾爲何如 益漸對曰 君臣之義 無所逃於天地 臣雖無狀 不敢奉詔 順帝怒曰 朕志已定 陪臣違命 罪當死 中朝諸臣爲解救 遂竄于南荒 益漸因商人之來東者 密通崔濡事于恭愍王 二十六年丙午九月 宥還 見途旁田中 有草白花如靄 使從者金龍摘取而看 守田老嫗曰 此草綿也 外國人移種 有厲禁 慎勿摘也 益漸遂潛藏三花于筆管來.

25) 卓光茂, 『景濂亭集』卷1, 「次三憂堂」

26) 卓光茂, 『景濂亭集』卷1, 「淚和陶隱二首」

이승인은 탁광무보다 17년 연하이면서 고려 말의 문인으로 흔히 ‘三隱’ 중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그는 46년의 일생동안 무려 네 차례나 유배를 다녀왔고, 끝내 유배지인 영남에서 정도전이 보낸 孫興宗·黃居正 등에게 杖殺되어 생을 마감하였다. 위 시가 지어진 시기는 명시되지 않아 자세하지는 않다. 하지만, 이승인이 탁광무에게 준 「杖流時 贈景濂亭」시제의 ‘杖流’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보면, 이승인의 나이는 42세(1388년)요, 탁광무의 나이는 59세가 된다. 당시 친원파인 李仁任이 우왕을 왕으로 추대하고 친명파를 추방하는가 하면, 林堅味·廉興邦 등의 충복을 요직에 앉히고 전횡을 일삼았다. 그런데 그의 횡포에 격노한 崔瑩·이성계 등에 의해 京山府(현 경북 성주군)에 安置되고, 얼마 되지 않아 생을 마감하니, 이승인은 이때 이인임과 척족이라는 이유로 通州(현 평북 선천)로 장류되었던 것이다. 장류되어 가는 중에 이승인이 먼저 탁광무에게 「장류시 증 경령정」이라는 두 수의 작품을 지어서 주었는데,²⁷⁾ 위 작품은 그 두 번째 작품의 운에 맞춘 것이다.

시문 기구에서의 충신은 물론 이승인을 말할 것이고, 이 세상의 흥망은 곧 이승인이 가는 행차에 달렸다고 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승인이 비록 억울하지만, 삶보다는 의연한 자세로 죽음을 선택했다고 하며, 구차하게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지 않은 모습을 ‘오히려 영광스럽다’고 하였다. 즉, 구차하게 목숨을 보존하는 것보다는 절의를 지키기 오히려 나음을 강조한 것이다.

탁광무의 절의 강조는 또 다른 시문에서도 엿볼 수 있다. 탁광무는 정몽주가 1392년 56세의 나이로 개성 善竹橋에서 擊殺당한 후 그를 애도하

27) 이승인의 「杖流時 贈景濂亭」두 수는 다음과 같다. ① 청산의 이별 길 흰 구름이 일어나. 이에 땅망히 떠나니 살기가 영켜있군요. 만일 남아가 만 리를 간다면, 살아 돌아오는 어느 날에 닭은 도 낚힐까요[靑山別路白雲興, 此去茫茫殺氣凝. 若使男兒行萬里, 生還何日道修弘] ② 뉘 알까 오늘의 이 개성을, 떠남에 이별은 쉽고 만남은 어려울 것입니다. 나 당당히 내 일만을 생각할지니, 사는 것이 비록 위대하나 죽는 것도 영광됩니다[誰知今日是開城, 易別難逢有此行. 思我堂堂惟我事, 生之雖大死猶榮]

는 시문을 남겼는데 다음과 같다.

鼎重生離大	솔처럼 무거운 삶 크게 이별하니
羽輕死亦榮	새털처럼 가벼운 죽음도 영광되네
橋留千古血	다리에는 천고의 피 남아있고
水帶萬年聲	물에는 만년의 명성 띠 돌렀구나
節氣風霜凜	절개는 풍상처럼 늠름하고
忠心日月明	충성스런 마음 해달처럼 밝네
孤魂猶未恨	외로운 혼은 오히려 한이 없으니
天地獨芳名 ²⁸⁾	천지에 홀로 꽃다운 이름 남으리라

정몽주는 고려 말의 충신으로서 난세에 정승 자리에 올라 여러 가지 善政을 베풀었으며, 유학자로서 배운 것을 몸소 실천해 옮기려고 하였다. 때문에 당시 이성계를 趙浚·정도전 등이 추대하여 易姓의 움직임이 있음을 포착하고, 먼저 제거하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역습당해 李芳遠의 문객 趙莢圭에 의해 선죽교에서 격살당한다. 이는 잘 알려진 역사적인 사건으로 정몽주의 고려를 향한 절의 정신은 먼 후대에까지 회자되고 있다.

위 시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수련 1구에서는 정몽주의 당시 정치적인 위치와 역할 등을 은유적으로 묘사하였는데, 마치 ‘솔과 같이 무겁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정몽주는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으니 죽음을 ‘새털처럼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여 소신을 지키기 위해 죽음도 불사한 정신을 드러내었다. 함련에서의 ‘다리’는 물론 선죽교를 뜻하는데,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 흔적은 영원할 것이라고 하며, 정몽주 절의의 영원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경련에서는 정몽주의 절의와 충심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지막 미련에서는 정몽주가 비록 비운의 죽음을 맞이했지만, 정의로운 것이기에 한은 없을 것이라고 하며, 그 이름이 영원히 후대에까지 남으리라고 하였다. 탁광무는 당시 정몽주와 뜻을 함께했던 徐甄에게 드린 輓詞도 지었는데, 함련에

28) 卓光茂, 『景濂亭集』 卷1, 「哀園隱」

서 ‘소나무에 높은 절개 기운 남겨두었고, 꽃에는 태평의 흔적 들렀구나’²⁹⁾라고 하여 절의 정신을 들어 예찬하였다.

이상 탁광무의 시문에 나타난 시국 인식과 절의 정신을 살폈다. 탁광무는 당시 고려가 쇠해지는 상황을 난세로 규정하였고, 많은 지인들이 절의 절을 지키려다가 유배를 가거나 죽음에까지 이르는 상황을 목격하였다. 그러면서 난세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했을 것이다. 절의는 정신적인 무장이 없으면 지키기 어려운 것이다. 탁광무 또한 직접 피해를 입어가며 절의 정신을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조선이 건국될 당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고, 한양과 멀리 떨어진 광주에서 누정을 짓고 유유자적하며 隱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表隱’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평소 유학의 도를 깨우치지 않았다면 어려운 것으로 곧, 정신적인 무장을 간접적으로 표방했다고 하겠다.

3) 脫俗的인 삶과 濂洛風의 시

탁광무가 벼슬하다가 물러나와 광주 별서에 ‘검림정’이라는 누정을 짓고 여생을 한적하게 지냈음은 앞 2장에서 이미 말하였다. 이제 바야흐로 脫俗의 공간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 추구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는 몇 편의 시문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 먼저 柳圭가 지은 「景濂亭集序」의 일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하물며 경림시는 高古하고 閒遠하여 여유로운 理趣가 있다. ‘수정에서 온 종일 청산만 바라보네’의 읊조림을 보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숭상하는 뜻의 정대함과 가슴 속의 灑落함을 그리워하게 하니 俗學 勢利의 절구질에 물들지 아니함이 있다. 마땅히 덕을 감추고 빛을 그윽이 하여 현자의 학행을 게발하여 울연히 국초의 명가가 되었으니 어찌 위대하지 아니한가?³⁰⁾

29) 卓光茂, 『景濂亭集』 卷1, 「次權楊村近 贈徐蕃村輓甄」, 松舍孤節氣, 花帶太平痕.

30) 卓光茂, 『景濂亭集』, 景濂亭集序[柳圭], 況景濂詩 高古閒遠 綽有理趣 觀於水亭終日對青山之詠 使人想慕其志向之正大 胸襟之灑落 有不染於俗學勢利之白 宜其潛德幽光 啓發賢子之學行 蔚然爲國初名家也 詎不偉歟.

먼저 탁광무 시문의 風貌를 ‘高古’, ‘閒遠’이라고 하였다. 이는 탈속성을 지녔음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 작품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예시로서 「退老詩」를 들었다. 「퇴로시」를 읽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숭상하는 뜻의 정대함과 가슴 속의 쇠락함을 그리워하게 한다’라고 하여 속세에서 벗어난 기운을 느끼게 함을 말하였다. ‘胸襟之灑落’에서 ‘쇠락’은 인품이 깨끗하고 속태가 없음을 말하는 것으로 흔히 중국 송 때의 학자 주돈이를 연상한다. 일찍이 주돈이의 친구 黃庭堅이 「濂溪詩序」를 썼는데, 여기에서 주돈이의 인품을 기리는 의미에서 ‘용릉 땅의 주무숙은 인품이 매우 고결해서, 가슴속이 쇠락한 것이 마치 비 갠 뒤의 바람과 달 같았다[春陵周茂叔 人品甚高 胸中灑落如光風霽月]’라고 하였다. ‘용릉’은 주돈이가 살던 곳이고, ‘무숙’은 주돈이의 자이다. 즉, 인품이 고고하고 깨끗했기에 俗態를 느낄 수 없음을 표현한 말로 이로 인하여 주돈이가 한층 고매한 사람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후대인들은 주돈이를 비롯한 程顥·程頤 형제, 張載, 朱熹 등이 지은 시문을 함께 아울러 ‘염락시’라고 하였다. ‘濂洛’이란 ‘濂洛關閩’의 준말이니 송대에 성리학을 제창한 주돈이와 정호·정이 형제, 장재, 주희의 고향인 ‘濂溪’·‘洛陽’·‘關中’·‘閩中’의 맨 앞 글자를 한 자씩 따서 만든 용어로 이로부터 송대의 程朱學, 곧 성리학을 ‘濂洛(關閩)之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들은 역시 당대의 성리학자인 邵雍이 제창하여 이른바 ‘邵康節體’라고 불리는 시를 많이 썼는데 송나라 말에 金履祥이 이들 성리학자인 48인의 시 및 箴, 銘, 誠, 制門, 贊 등의 문을 모아 『濂洛風雅』라는 책을 편찬하면서 이들이 지은 일련의 시들을 ‘염락풍’, ‘염락체’, 혹은 ‘염락시’라고 일컫게 되었다.³¹⁾ 쇠락한 기상이야 본디 ‘늦봄에 봄옷이 다 만들어지면 그것을 입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沂水에서 목욕하고 舞雩壇에서 바람 쇄고 한 곡조 읊고서 돌아오겠다.’³²⁾고 답한 曾點에게서 나온 것인데, 주돈이를 비롯한 송 때의 유학자들은 증점의 이러한

31) 홍학희, 「한국 道學詩 연구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 『한국고전연구』10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4, 197쪽.

32) 『論語』「先進」, 暮春者 春服既成 冠者五六人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

기상을 이어받았던 것이다. 앞에서 이미 말한 대로 이제현이 탁광무의 누정 이름을 ‘주돈이를 경모한다’는 의미에서 ‘경렴정’이라고 지었는데, 탁광무의 시문을 평가하는 가운데 나온 ‘가슴 속의 쇠락함을 그리워하게 한다’는 말이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님을 볼 수 있다. 탁광무는 장편의 고체시인 「遣悶三十四韻」 첫머리에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부터, 세상과는 맞지 않았네[我生於此世，與世不相當]’³³⁾라고 하였듯이 벼슬에만 연연하는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벼슬에서 물러나와 낙향하여 누정을 지었는데, 그곳에 편액한 시문을 다음과 같이 지었다.

海東形勝擅湖南
上有濂亭下有潭
弄月吟風多靜味
觀魚聽鳥足閒談
島頭松葉合雲飽
池面蓮花帶雨酣
幽趣溪山眞釀得
詠而歸日飲而甘³⁴⁾

해동의 빼어난 승경 호남에서 차지하니
위로는 경렴정이 있고 아래로는 못이 있어라
달을 보고 바람을 읊조리니 고요한 맛이 많고
새소리 듣고 물고기 보니 한가한 이야기 나눌만하네
바닷가 솔잎 구름 가득 머금기 함당하고
못가의 연꽃 빗물을 달게 띠 둘러네
그윽한 취미의 계산에서 진한 술 얻었으니
읊조리며 돌아오는 날 마시면 달짚구나

수련에서는 먼저 호남 승경의 빼어남을 적고서 거기에 경렴정이 있음을 말하였다. 그리고 함련에서는 주로 경렴정 주변의 승경을 나타내었는데, 음풍농월하기 적당하고, 새소리와 물고기를 보면서 유유자적하게 한가로운 이야기를 나눌 만하다라고 하였다. 경련에서는 바닷가의 솔잎이 구름을 가득 머금고, 못가의 연꽃이 빗물을 달게 띠 둘러했다고 하며, 이를 다음의 ‘眞釀’과 연결짓게 하였다. ‘진양’은 솔잎이 머금은 구름이요, 연꽃에 둘러진 빗물로 마치 雨露와도 같은 것이다. 작자는 이의 맛을 달다라고 하여 자연에 同化된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작품은 이곡에게 써서 준 것인데, 자연에 묻혀 살며 自足해 하는

33) 卓光茂, 『景濂亭集』 卷1, 「遣悶三十四韻」

34) 卓光茂, 『景濂亭集』 卷1, 「景濂亭扁額」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江海任遨遊	강해에서 재미있고 즐겁게 노니
解吾進退憂	내 진퇴의 근심을 풀어줍니다
鑄成三影月	달빛 아래의 술잔 세 그림자를 이루고
笛送一聲秋	가을의 피리 한 소리를 보내는군요
風穩棲鴉背	평온한 바람 까마귀 등에 깃들고
煙凝睡鴨頭	영긴 연기 오리 머리에 드리웁니다
早知難處事	일찍이 일 처리하기 어려움 알아
宅近五湖舟 ³⁵⁾	집 가까이 五湖舟를 두었지요

처음 수련에서부터 자연에서 노니니 그동안의 진퇴 고민이 사라졌다고 하며, 만족스러운 인상을 주고 있다. 함련의 시어 ‘三影’은 밝은 달 아래에서 獨酌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비슷한 것이 李白의 시 「月下獨酌」에도 나온다. 그 시문 가운데 ‘잔 들어 밝은 달 맞으니, 그림자를 대하매 세 사람이 되었네[舉杯邀明月 對影成三人]’라는 내용의 세 사람은 잔 속에 비치는 모습과 달에 비치는 그림자, 그리고 자신 등을 말하는 것으로 자연에 동화된 모습을 잘 묘사했을 뿐 아니라 상황을 낭만적으로 그려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내렸다. 달을 배경삼아 독작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들리는지는 모르지만 가을의 피리 소리가 들린다고 하며 시·청각의 이미지를 한데 어우르고 있다. 경련에서는 ‘風穩’과 ‘煙凝’, ‘鴉背’와 ‘鴨頭’ 등을 맺구어로 만들어 평온한 이미지를 한층 부각시켰고, 미련에서는 시적 화자 자신은 일찍이 속세의 일 처리함의 어려움을 알았기에 집 가까이 五湖舟를 두었다고 하였다. 오호주는 중국 춘추시대에 越나라의 신하 范蠡가 吳나라를 멸망시키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오던 길에 五湖에 이르러 월왕 句踐과 작별하고 일엽편주를 타고 종적을 감추었다는 고사에서 나온 것으로 언제든지 미련없이 속세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말한 것이다.

35) 卓光茂, 『景濂亭集』卷1, 「偶題稼亭李穀文孝公」

다음 시문은 『동문선』권16에 실린 작품으로 「景濂亭」이라는 시제로도 알려진 것으로 보아 경렴정을 대상으로 지었음을 알 수 있다. 탁광무의 대표작으로서 속세를 떠나 추구한 진정한 삶의 모습을 그렸다.

懶向人前強作顏
水亭終日對青山
吾家嗜好與時異
此地清幽非世間
風月無私隨處足
乾坤大度放予閑
逍遙自適忘機裏
臥看長空倦鳥還³⁶⁾

남들 앞에 억지웃음 짓기 싫어
수정에서 온종일 청산만 바라보네
우리 집의 기호는 시속과는 다르고
이곳은 그윽하여 세상 것이 아니로세
풍월은 사사로움이 없어 가는 곳마다 푸짐하고
천지는 도량이 커서 한가한 나를 내버려두네
만사를 다 잊고서 소요 자적하다가
누워서 공중에 돌아오는 지친 새를 보노라

남들 앞에 서면 아무래도 내키지 않은 웃음을 보여야 할 때가 있다. 작자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싫었던 것이다. 때문에 사람들이 아닌 자연을 벗삼았노라며, 하루 종일 청산만 대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심정을 변명하고 있다. 함련에서는 작자 자신의 집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고, 지금 작자가 있는 경렴정은 그윽하여 세상과 동떨어져 있다라고 하며, 탈속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경렴정에 있다 보면, 이런 저런 자연을 대하게 되는데, ‘風月’과 ‘乾坤’은 바로 자연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것이다. 사사로움이 없다는 것은 공적이라는 말이기도 한데, 너와 내가 없이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천지는 모든 것을 함유할 정도로 도량이 커서 유유자적하게 노니는 자신조차도 용납하고 있다고 하였다. 자연과 분리되지 않은 合自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 시문을 통해서 탁광무의 탈속적인 삶의 모습과 함께 쇠락한 기운을 담은 염락풍의 시문을 살폈다. 일찍이 孔子는 ‘현자는 천하에 도가 없으면 피하고, 그다음은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았으면 피하고, 그다음은 예모가 쇠하였으면 피하고, 그다음은 말을 어기는 것을 보면 피한다.’³⁷⁾라고

36) 卓光茂, 『景濂亭集』卷1, 「退老詩」

하였고, ‘은둔하여 살면서 그 뜻을 추구하고, 의리를 실천하여 그 도리를 실현한다.’³⁷⁾고 하였다. 이러한 공자의 실천관은 후대 유학자들의 표본이 되어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잠시 은둔의 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자세라고 여겼다. 탁광무가 추구한 탈속적인 삶도 결국 공자의 이러한 실천관에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는데, 고려 말이라는 난세를 당하여 유학의 도를 배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이지를 깊이 생각했을 것이다. 결국 탁광무의 고민은 실천으로 옮겨졌을 것이고, 낙향하여 누정을 짓고서 탈속적인 삶을 즐겼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탈속성은 완전히 세상과 멀어진 道敎的인 것이 아닌 언제나 세상을 향해 귀를 열어 두는 유교적인 것으로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4. 호남 한시사상의 위치와 가치

지금까지 탁광무의 삶의 궤적을 더듬어보고, 28수 시문을 대상으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살폈다. 탁광무는 14~5세기를 살다간 인물로 벼슬 후의 흔적만 남아있어 탄생지가 어디인지조차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벼슬을 그만둔 후 광주로 와서 별서에 경림정을 지은 것으로 보면, 호남과 인연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 선대부터 광주에 터를 잡고 살았기 때문에 탁광무는 생애 마지막도 자연스럽게 광주에 머무르고자 했을 것이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탁광무가 차지하는 호남한시사상의 위치를 밝히고, 가치 등을 구명하고자 한다.

사실 고려시대 때는 개인 문집을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오랜 세월 지나오면서 그것을 고스란히 보존하기란 또한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름만 남아있고, 실존하지 않은 문집들이 많은데, 많은

37) 『論語』「憲問」, 賢者辟世 其次辟地 其次辟色 其次辟言.

38) 『論語』「季氏」, 隱居以求其志 行義以達其道.

양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한다. 사실 문집은 어떤 문인이 죽은 다음에 후손이나 제자들에 의해서 간행되기에 이르는데, 상황이 여의치 못할 때는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사라진 파편 조각을 찾아 맞추듯이 여기저기 흩어진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엮어내기도 한다. 조선후기에 이러한 작업들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데, 자신의 뿌리를 찾으려는 후손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하겠다. 탁광무의 문집 『경렴정집』도 마찬가지로 조선후기에 이르러서야 엮어질 수 있었다. 남긴 글과 시문, 당시 유명 인사들과의 교류 정도를 보면, 적지 않은 시문이 지어졌을 것인데, 오랜 세월이 흘러오면서 散逸된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렴정집』이 흔히 볼 수 없는 14~5세기 문인의 문집이라는 측면에서부터 벌써 그 가치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거의 초기 호남한시사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결코 그냥 넘길 수만은 없다.

주지하다시피 호남의 한문학은 조선조 15~6세기 무렵에 가장 흥성하였는데, 수많은 문인들이 중앙 문단에서 그 이름을 빛냈다. 따라서 이제까지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때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적지 않은 연구 성과물도 냈다. 그러면서도 15~6세기를 기점으로 그 전 시대와 그 다음 시대의 호남한문학의 흐름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형편이다. 이런 시점에서 탁광무에 대한 관심은 의미있는 작업임에 분명하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발간한 문집총간을 보면, 13~4세기 문인의 문집으로는 전남·북을 합해 총 5종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시대 이전의 호남한문학 또는 학문적 분위기를 구명하는 소중한 자료들이다. 그중 탁광무는 당시 유력한 유학자로서 시문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나타내 보여 주었는데, 이는 결국 호남 정신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특히, 유학자로서 실천적인 측면이 강하여 절의를 중요시했음은 조선의 건국과 맞물리면서 논의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비록 한시문에서 미학적인 가치는 추적할 여건이 못 되었지만, 그 전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작자 정신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는 있다고 하겠다. 결국 탁광무

는 많지 않은 고려후기 호남문인으로서 호남한문학 또는 한시사의 출발을 알리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중요하게 인식해야 하며, 가치 또한 높다고 하겠다.

5. 맺음말

본 논고는 탁광무의 삶과 그의 시문 26제 28수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시적 구현 양상은 어떠했는가? 등을 구명해보고자 하였다.

탁광무는 공민왕 초기에 벼슬을 하기 시작하여 예의판서를 끝으로 낙향하여 ‘경렴정’이라는 누정을 짓고 유유자적하게 여생을 살았다. 경렴정은 이제현이 지어준 이름인데, 주돈이의 호인 ‘렴계’를 들어 ‘주돈이를 우러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제현은 탁광무를 혼탁한 세상에 쉽게 물들지 않으면서 쇠락함을 견비한 유학자적 면모를 지닌 것으로 인식했다고 하겠다.

시적 구현 양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는 儒學의 翫得과 이해요, 둘째는 時局 인식과 節義의 강조, 셋째는 脫俗의인 삶과 濂洛風의 시 등이 그것이다.

첫째의 내용에서는 주로 탁광무가 유학을 습득하는 과정과 어느 정도의 이해를 하고 있었는가 등을 다루었다. 탁광무를 직접 가르친 스승에 대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이제현과 관련된 시문에서 이제현으로부터 유학을 전수받은 것처럼 적고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선·후배 사이이지만 사제지간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탁광무는 유학이 어떻게 알려지고 있는가 등에 대한 내용을 시문에 담기도 했는데, 유학과 관련된 작품에서 아직은 깊이 있는 사상을 드러내지 못한 것을 한계점으로 지적하였다.

둘째 내용에서는 탁광무의 시국 인식 정도와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절의를 강조하는 모습을 주로 언급하였다. 탁광무와 교유했던 주요 인사들

로는 정몽주, 이제현, 이숭인, 서견, 이인복, 이곡, 이색·이종학 부자, 문익점, 윤소중 등인데, 이들은 격동기를 맞이하여 유배를 가거나 죽음에 이르는 등 희생을 당해야만 하였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고려의 신하로서 조선의 건국에 별로 동조하지 않았다. 때문에 심한 고초를 겪어야만 했는데, 그러면서도 절의만은 꺾지를 않았다. 탁광무는 이점을 높이 샀던 것이다.

셋째 내용에서는 탁광무가 벼슬에서 물러난 후 탈속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아울러 그러는 가운데 창작된 염락풍의 시문에 주목하였다. 유규는 문집 서문에서 탁광무를 시문을 평가하기를 ‘읽으면 가슴속이 쾌락해진다’라고 하였다. 이는 속된 기운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마치 주돈이의 인품과 비견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시문을 남기고 있어서 염락풍으로 규정하였다.

탁광무는 고려 말 문인으로서 거의 초기 호남한시사의 주요 인물이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이 됨은 당연하고, 비록 문학사에서 작은 물줄기에 불과한 위치에 있다고는 하더라도 그 중요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참고문헌

『景濂亭集』, 『高麗史』, 『論語』, 『東文選』, 『牧隱文藁』,
『三峯集』, 『象村集』, 『陽村集』, 『靑莊館全書』

閔丙秀, 『한국한시사』, 태학사, 1996, 188쪽.

_____, 『한국한문학개론』, 태학사, 1997, 315쪽.

朴天主, 「三隱과 麗末 漢文學」, 『동양학』9,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79,
179쪽.

李炳赫, 「程朱學 傳來와 麗末 漢文學」, 『동방문학비교연구총서』1, 한국동방
문학비교연구회, 1985, 662쪽.

李淑京, 「李齊賢勢力的 形成과 그 役割-恭愍王 前期(1351~1365) 改革政治
의 推進과 관련하여-」, 『한국사연구』64, 한국사연구회, 1989.

李泰鎭, 「高麗末 · 朝鮮初の 社會變化」, 『진단학보』55집, 진단학회, 1983, 1쪽.

정옥자, 「麗末 朱子性理學의 導入에 대한 試考-李齊賢을 中心으로-」, 『진단
학보』51집, 진단학회, 1981, 50쪽.

홍학희, 「한국 道學詩 연구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 『한국고전연구』10
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4, 197쪽.

투고일 : 2010년 6월 30일, 심사 : 2010년 7월 15일~ 8월 10일, 게재확정 : 8월 13일

<Abstract>

Tak Gwang Mu's Life and His Poetic Realization

Park, Myoung-Hui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ak Gwang Mu' life and how his life was realized through poetry, targeting his twenty-eight poems on twenty-six topics.

The aspects of poetic realization were roughly categorized into three parts: first, learning and understanding of Confucianism; second, awareness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emphasis on integrity; third, unworldly life and poetry of Yeomlak style.

This study examined the process through which Mr. Tak learned Confucianism and how much he understood it. He wrote how Confucianism was known in his poetry and pointed out that the poetry related to Confucianism did not deal with its deep ideas.

This study mentioned how much Tak recognized current situation and emphasized fidelity under troubled times. Most of the persons who made friendships with Mr. Tak were public servants of Goryeo and did not recognize the foundation of Joseon Dynasty. They insisted fidelity to their country though they had severe suffering. Mr. Tak valued it.

Finally, this study focused on the fact that he lived worldly life after he resigned from a government post, and his poetry of Yeomlak style. As the poetry of Yeomlak style means that there is no worldly spirit, it is comparable to personality of Joo, Don Eee.

Key words : Tak, Gwang Mu, Lee, Je Hyun, Lee Sung In, Jeong, Do Jeon, Joo Don Eee, Yeomlak style, Jung Mong Joo, Honam Hansisa, Gyeongryomjung